

# 美, 대만에 패트리엇 부품등 첨단무기 판매

**미국** 정부가 대만에 대한 지난 5년간의 첨단무기판매 금지조치를 중단하고, 패트리엇 미사일(사진) 생산업체인 레이선社에 대만에 패트리엇(patriot) 미사일 부품을 판매하도록 허가했다고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紙가 최근 보도했다.

한편 대만 국가정책연구소의 자유화 연구원은 미국이 대만에 패트리엇 미사일의 유도체계 레이더 및 지휘통제장비와 AH-1S 헬기 그리고 M60-A3 전차 구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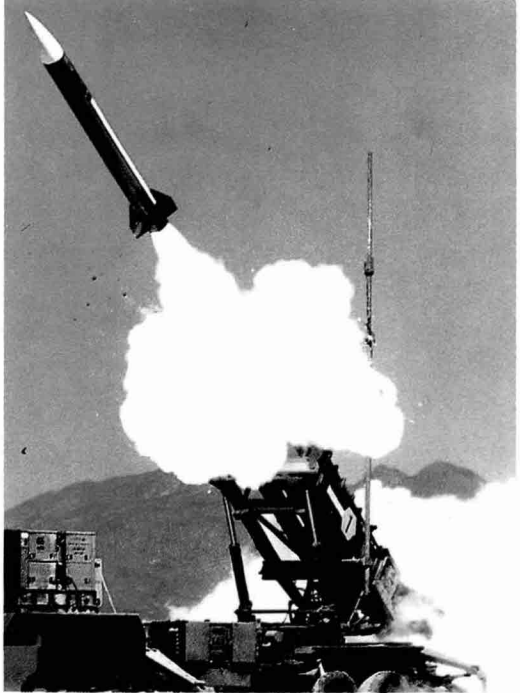
대만 무기는 대부분 미국 무기와 기술에 기초한 것이나, 미국은 그동안 국방 최전선에서 사용되는 무기의 판매를 금지해왔는데, 군사 분석가들은 이번 무기 판매 허용조치가 미국 정책의 중요한 전환으로 볼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북한, 제3세계 미사일 공급 주도

**북한** 이 제3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미사일의 공급과 기술지원에 앞장서고 있다고 독일대외정보본부(BND)의 콘라드 포르츠너 본부장이 밝혔다.

포르츠너 본부장은 현재 제3세계 국가들간에 미사일기술개발을 위한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북한이 이에 앞장서고 있다며, 북한은 스커드미사일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제조시설의 건설과 사정거리 확대작업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최근 <디벨트>紙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미국 하버드대학 인구개발연구센터의 N에바 스타트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의 군인(1백 24만9천명)은 소련, 중국, 미국, 인도, 베트남에 이은 세계 6번째의 규모이나, 전체 인구비당 군인수는 북한이 6.1%로 세계 제1위라고 밝히면서, 이는 다른 나라와는 비교도 안될만큼 높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 日本, 향후 20년간 플루토늄 1백톤 구입

**일본** 이 핵폭탄제조에 쓰일수도 있는 플루토늄을 금년부터 앞으로 20년에 걸쳐 약1백톤 가량 유럽으로부터 도입할 계획임이 밝혀져 東北亞의 새로운 위협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이 원자재의 구입계획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의 정부관계자들 및 전문가들은 보안에 문제가 있으며, 앞으로의 용도에도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미국의 <뉴욕 타임스>지가 최근 보도했다.

한편 이 신문은 일본이 북한의 핵재처리 시설 폐기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으면서, 그들은 국내에 세계 최대의 핵재처리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모순을 지적하였다.

<타임스>지는 美행정부의 한 관리의 말을 인용, 일본이 플루토늄을 도입하려는 이유는 에너지 자급자족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 「일본의 핵재처리시설 확충계획에 못마땅해 하는 나라가 많다」고 밝혔다.

## 韓·EC(유럽공동체) 과학기술협약 下半年期 체결

**우리나라** 와 유럽공동체(EC) 간에 과학기술협력약정이 올해 하반기(下半年期) 중에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EC통합전에 기술협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과기처는 금년 3월중 브뤼셀에서 과학기술협력 워크숍을 개최하여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과기처는 우리나라와 EC간에 과학기술협력약정이 체결되어야만 현재 EC가 추진하고 있는 고속컴퓨터 개발(ESPRIT)을 비롯하여 종합광역통신망(RACE), 산업용 신소재 개발(EURAM)등의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할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우리 연구원들을 파견하여 각종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과기처는 이미 과학기술협력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과는 국가별 특화기술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 아래, 신소재, 유전공학, 환경, 에너지 분야의 공동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EC와 과학기술협력협약을 체결한 나

라는 호주와 캐나다 등으로 이들 국가는 이미 유럽 공동연구프로그램(EUREKA)에 참여하고 있다.

### 斗源重工業, 선박용 디젤엔진 자체 개발

**두원중공업** 이 자체기술진에 의해 5백마력급 선박용 디젤엔진을 개발했다.

이 디젤엔진은 직접분사식 연료방식을 채택하여 경제성과 높은 내구성이 특징으로, 50t~90t급 중·소형 어선과 운반선에 사용되며, 대형선박의 발전용 엔진으로 공급된다.

특히 기존의 국내 제품이 외국과의 기술제휴 생산방식으로 국산화율이 저조한데 반하여, 이번 개발은 1년6개월 동안 5억원의 개발비를 투자해 상품화한 독자개발로서, 국산화율이 90% 이상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두원중공업은 이번 개발을 계기로 올 하반기부터 6백, 8백마력급 엔진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며, 현재 월 20대 정도를 생산하고 있다.

## 韓·美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韓·美** 과학기술협력협정이 1월 6일 李相玉 외무부장관과 그레그 주한미국대사 사이에 체결되었다.

韓·美 양국은 '76년에 처음 협정을 체결,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지적소유권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인해 '88년 10월 협정기간이 만료됨과 함께 자동 폐기된후 협정부재의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이번 협정은 특허비밀보호협정 등 양국의 합의에 바탕을 두고 체결됨으로써, 양국간의 보다 새로운 협력관계는 물론 질적으로 더욱 긴밀한 관계를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이번 협정의 재체결에 따라 양국은 공동연구활동, 과학기술정보 교환, 전문가 교류 등을 추진하

게 되며, 협력사업의 선정, 수행, 평가를 위해 장관급을 대표로 하는 「과학기술 공동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공동연구개발 과제로는 공작기계, 인공지능컴퓨터 등 7개의 첨단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양국의 과학기술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학기술포럼」을 구성하여 매년 회의를 갖고 적절한 협력분야와 중·장기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협정체결을 계기로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양적인 협력확대를 모색함은 물론 한·미간 협력을 일본의 엔블럭에 대응하는 전략적 기술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 한국화이바, 첨단 항공기 소재 국산화 “쾌거”

— 독자 기술개발 … 美서도 품질 인정 —

**한국화이바**가 항공기용 복합소재를 순수 독자기술로 개발, 세계적인 항공기 복합소재 메이커로 부상(浮上)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복합소재는 「파이버글라스」, 「카본」, 「케블라」 등 3종의 첨단소재로서, 한국화이바가 5년여 기간동안 10억여원의 연구비를 투자해 개발에 성공한 쾌거였다.

더욱이 이들 소재의 개발이 순수 자체기술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국내 관련업계는 물론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으며, 첨단소재 국산화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말에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산업기술진흥회가 공동주관하는 「IR 52 장영실賞」을 수상하기도 했다.

복합소재란 강화섬유와 매트릭스(matrix) 수지를 복합한 재료로서 FRP(섬유로 강화한 수지)라고도 불리워지는데, 이번에 개발한 3종의 신소재는 강철보다 강하면서도 알루미늄보다 가벼운 최첨단의 복합재료 성형소재이다.

이들 복합재료가 갖는 경량성, 고강도 및 고탄성 등의 특징은 항공기의 운항성능에 직결되고 있다. 특히 전투기와 같은 군용항공기에서는 고속화, 운항거리의 연장 및 기동성의

향상을 위한 필수재료로서, 초음속기의 표면재료와 날개를 비롯한 항공기의 1차, 2차 구조물 제작에 사용된다.

복합소재의 기술개발은 항공산업과 밀접한 분야로서, 한국화이바가 이들 첨단소재를 순수 독자기술로 개발, 생산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몇안되는 복합소재의 독자기술 보유국이 되었으며, 국내 항공산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복합재료는 지난해 5월 세계적인 항공기 제조회사인 美 M·D社의 QPL(품질인증재료 목록)에 정식 등재되었으며, 美 연방항공국(FAA)에도 등록, 인증서를 받았다.

첨단복합소재는 앞으로 항공기 뿐만 아니라 자동차, 조선, 건설 분야까지 광범위한 기술과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국내 항공산업계가 올해부터 KFP사업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그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적인 항공기 부품 업체들로부터 이미 주문이 들어오고 있어, 수출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화이바는 지난 11월 대한항공 및 삼선공업과 공동으로 최초의 국산항공기인 「창공 91」(사진)을 성공리에 이륙시킨바 있다. (容)

삼성항공이 올해부터 본격 투자에 들어간다. 사진은 지난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국방부, 군수본부, 국과연, 품관소 등 정부 관계관과 삼성항공을 비롯한 국내 참여업체 대표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사업관리자 회의 모습



## 三星航空, 한국전투기사업(KFP)투자 본격화 - 기술인력 확보에도 본격 착수 -

**空軍** 전투력 증강과 국내 항공산업 육성을 지향하는 한국전투기사업(KFP)의 주계약업체인 삼성항공이 올해부터 본격 투자에 들어간다.

이는 한·미 양국정부간 및 美 G.D사와의 각종 계약이 체결된데 이어, 지난 12월 주협력 및 전문업체와의 계약이 완료되었으며, 92년 1월중 국내전문업체와 미국업체와의 계약이 완료된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삼성항공은 KFP사업을 위해 경남 사천(泗川)에 15만평 규모의 공장부지 조성 등 7백억원을 투자해 왔으며, 올해(5백억원 투자)부터는 공장건설 및 설비/지공구 확보, 유도로/주기장(駐機場) 건설등에 착수한다.

내년(93년)까지는 조립공장 건설이 완료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94년에는 부대시설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泗州공장에서는 완제기로 도입하는 F-16기의 시험비행을 비롯하여 부품조립의 2단계와 주로 국내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부품제작의 3단계사업이 중점 추진된다.

이와함께 삼성항공은 기술인력 확보에도 본격 착수하여 95년 내지 96년에는 기존의 2~3백명을 포함하여 1천 7백명~1천 8백명

(설계·연구인력 포함)의 인력을 보유할 계획으로 있다. 해마다 3~4백명의 인력소요가 제기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5백명의 생산기술인력 확보가 예정되어 있다.

또한 삼성항공은 사업종료(99년)시까지 소시스템의 부품 국산화율이 50%를 상회하도록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엔진의 경우 국산화 목표를 40%를 상회하는 것으로 잡고 있다.

70년대 후반 일본이 F-15기의 기술도입생산에 착수할 당시 엔진 국산화 목표는 25%를 지향했던 것에 비추어 본다면 매우 의욕적인 출발로 판단된다.

KFP사업 본격추진과 관련하여 삼성항공의 余永祿 담당(KFP사업본부, 理事級)은 항공산업의 기술을 결집할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강조하면서, 때늦은 감은 있지만 시의적절한 사업이라고 피력하였다.

또 余담당은 대만이나 인도네시아 등 우리와 유사한 수준의 나라들도 자국산 전투기를 확보하고, 항공기술의 국력화에 주력하고 있는데 비추어 볼때 이제 우리가 이러한 대열에 동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시점이라고 밝혔다. (泰)